르포- '산바' 북상 광주 승촌동 비닐하우스·나주 배농가 표정

"겹태풍 악몽 여전한데 또…" 초긴장

"하나라도 더 지켜라" 농민들 노심초사

"또 태풍이 온다는데…. 정말 죽고 싶은 심정이오."

16일 오후 광주시 남구 승촌동 비닐하우스 단지. 중심최대풍속 48m/s의 강풍과 호우를 동반한 제16호 태풍 '산바'(SANBA)가 광주·전남을 향해 북상중이라는 소식을 들은 농민들은 떨어지는 빗방울을 온몸으로 맞아가며 대비에 안간힘이었다.

끼니도 거르고 모인 농민들은 삼삼오오 모여 볼라벤이 지나가고 덧씌운 비닐이 산바에 날아가지 않도록 줄을 이어 바닥에 고정했다. 쓰러졌던 지지대를 세우고, 고랑도 팠다. 또 이미 종이처럼 구겨진 비닐하우스 안에 남은 피망을 하나라도 더 수확하기 위해 질퍽거리는 이랑을 오갔다.

농민들의 얼굴에서는 긴장감과 걱정이 그대로 묻어났다. 지난달 말 볼라벤과 덴빈이 남긴 상처가 채 아물지 않았기 때문이다. 당시 이 지역에서만 비닐하우스 2600동이 파손되는 등 모두 107억여원의 재산피해가 났다.

노양균(45)씨는 "최근에 덧씌운 비닐을 산바가 다시 찢어버릴 것만 같다"며 "할 수 있는 준비는 다했으니까 이제는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겹태풍 피해에 대한 보상 정책도 답답하기만 하다. 정부가 비닐하우스 농가에 대해서는 농작물을 제외하고 시설물에 대해서만 일부 보상을 해줄 예정이기 때문이다. 노씨는 "농작물이 무름병으로 썩고 있는데, 비닐하우스 한 동의 농작물 피해만 수천만원에 달한다"며 "이젠 빚더미를 끌어 안고 살아야 할 것 같다"고 하소연했다.

볼라벤과 덴빈에 심각한 낙과 피해를 봤던 나주시 금천면 배 농가들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대부분의 농가에서 조기수확 작업이 한창이었다. 배나무 밑에는 지난 태풍에 80%가량 떨어진 배들이 나뒹굴며 썩기 시작해 시큼한 냄새를 풍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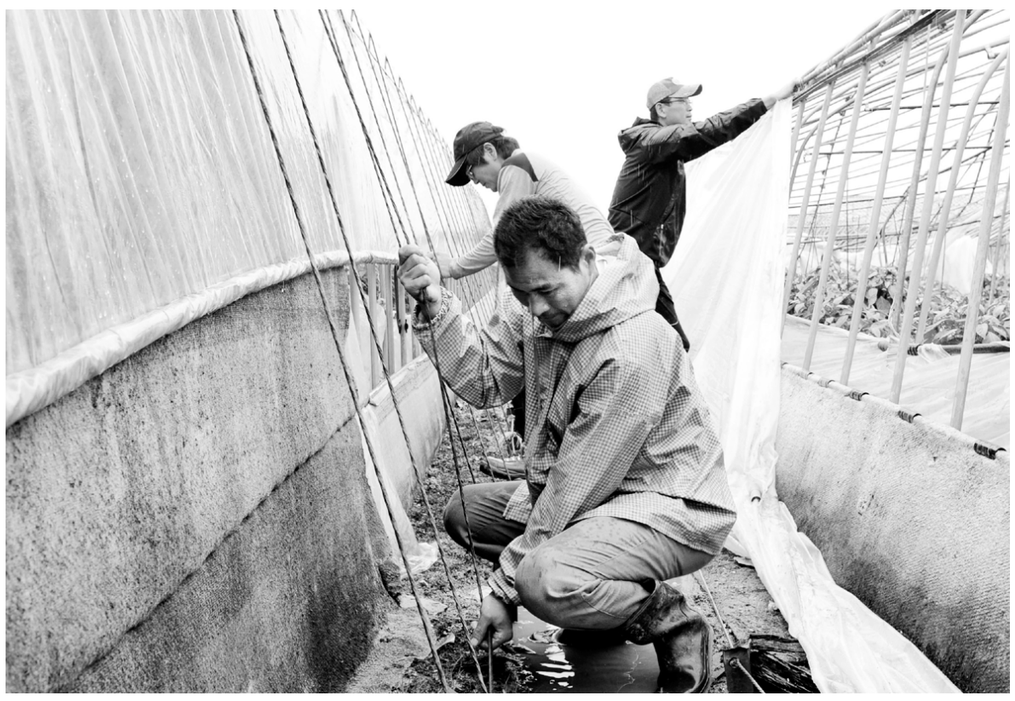
채병희(71)씨는 "아직 상품가치가 부족하지만 또 태풍이 온다는 소식 때문에 3일 전부터 온 가족이 나서서 수확을 하고 있다"며 "창고에 쌓아두고 숙성시켜서 출하할 예정인데, 그나마도 손에 꼽을 정도다"고 말했다.

태풍이 관통할 것으로 예보된 여수와 완도에서도 어민들의 손길이 분주했다. 여수에서는 이미 어선 4800여척을 국동항 등에 피항시켰고, 일부 소형 어선을 육지로 끌어올리기도 했다.

강풍을 동반한 볼라벤으로 인해 전복 등을 키우는 가두리 양식장이 큰 타격을 입은 바 있는 완도지역 어민들도 태풍의 진로를 예의주시하며 초조한 하루를 보냈다.

여수시 관계자는 "7명이 사망하고 2000억원의 재산피해를 낸 지난 2003년 태풍 '매미'의 악몽이 떠오른다"고 우려를 감추지 못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동부취재본부=김창화기자 chkim@



태풍 '산바'의 영향으로 비가 내린 16일 광주시 남구 승촌동의 피망 재배 농민들이 강풍피해를 막기 위해 비닐하우스를 정비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산바'도 강풍 무섭다

최대 초속 50m 이상… 지붕·간판 고정해야

제 16호 태풍 '산바'(SANBA)는 최대 순간풍속 50m/s 이상의 강풍과 많은 비를 동반할 것으로 예상된다.

강풍이 위력적이었던 볼라벤과, 많은 비를 뿌린 덴빈의 특성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만큼 피해가 더 커질 가능성이 크다.

가장 우려되는 것은 최대순간풍속이 59.5m/s에 달했던 볼라벤과 비슷한 수준의 강풍. 산바는 16일 오후 3시 현재 오키나와 북쪽 약 280㎞ 부근 해상에서 시간당 33㎞의 속도로 북상중이며, 현재 중심순간풍속은 48m/s로 '매우 강한 중형' 태풍의 위력을 보이고 있다.

산바는 북상하면서 점차 세력이 약해질 예상이지만 광주·전남을 정면으로 관통할 것으로 예상되는 17일 정오께에도 중심순간풍속 40m/s 이상의 '강한 중형' 태풍의 위력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강풍과 호우가 몰아치면 공사장 인근, 아파트 등 고층건물 옥상, 지하실, 하수도 맨홀에 접근해서는 안된다. 하천이나 저지대에 세워둔 차량은 안전지대로 옮기고 침수 지역을 피해 운전해야 한다.

호우 때는 감속 운전을 하고 차량에 물이 들어오면 시동을 걸지 말고 즉시 대피해야 한다. 또 전신주, 가로등, 신호등을 손으로 만지거나 접근해서는 안 되며, 감전위험이 있으면 즉각 기술자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바람에 날아갈 위험이 있는 지붕, 간판, 창문, 출입문, 자전거 등은 고정해두고, 유리창 파손 예방을 위해 젖은 신문지, 테이프 등을 창문에 부착하는 것이 좋다.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CNC 의혹' 장휘국 교육감 조사

서울지검, 선거비보전 1억 과다청구 공모 여부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상호 부장검사)는 지난 14일 오후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을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장 교육감이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선거비용으로 보전받은 6억5000만원 중 5억여원을 선거홍보대행사인 선거홍보대행사 CN커뮤니케이션즈(CNC)에 건넸고, 이중 1억원 가량이 과다청구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 중이다.

검찰은 CNC가 허위 견적서를 이용해 장 교육감 측과 짜고 선거비용을 부풀렸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장 교육감은 지난 6월 광주지검 순천지청에서 사건을 수사할 때도 한 차례 조사받은 적이 있다.

검찰은 장 교육감을 상대로 2010년 6·2 지방선거 당시 CNC와의 계약내용을 사전에 알았는지와 선거비용 청구 경위 등을 추궁할 예정이다.

장 교육감은 CNC와의 계약·거래나 선거보전금 환급 절차가 정상적·합법적으로 이뤄졌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장 교육감은 2010년 지방선거에서 유세차량 2억5000만원, 선거운동원 인건비 1억1000만원, 법정공보물·현수막 비용 2억여원, 광고비 등 모두 6억7000여만원을 사용했다고 선관위에 신고한 바 있다. 이 가운데 인건비 1억1000만원을 제외한 5억원 이상이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운영한 CNC에 지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점수 조작 전 간부 10월 구형

광주시교육청 특채비리

광주지검 특수부(김석우 부장검사)는 최근 교육공무원 특별채용 과정에서 점수표를 조작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광주시 교육청 전 교원인사과장 직무대리 이모(56)씨에 대해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함께 기소된 전 인사과 직원인 또 다른 이모(42)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선고공판은 다음달 11일 오전 광주지법 404호 법정에서 열린다. 이들은 지난해 2월 특채과정에서 내정자의 점수가 낮게 나오자 점수를 높이고 실제 합격자의 점수를 낮춰 내정자가 음악 교사로 채용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교과부는 지난해 말 종합감사를 통해 이 사실을 적발, 검찰에 고발했으며 광주시교육청에 중징계 등을 요구한 바 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법원, 유태명 병보석 기각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된 유태명(68) 광주시 동구청장이 건강을 이유로 보석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기각했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창한)는 최근 유 청장이 신청한 보석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유 청장의 보석을 허가할 경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접대성 해외여행 검찰 직원 징계 정당"

광주지법, 원고 패소 판결

광주지법 행정부(부장판사 김재영)는 최근 조직폭력배 후배 등과 함께 접대성 해외여행을 다녀 왔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은 검찰직원 김모(38)씨가 광주고검 검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공정한 법집행을 위해 엄정한 중립성이 요구되는 김씨가 범죄전력이 있고 조직폭력배와 연루된 사람들과 접대성 해외여행을 다녀 온 점이 인정된다"며 "김씨에게 내린 정직 1개월 징계처분은 사회통념상 형평성에 어긋나거나 가혹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전주지검에 근무 중인 김씨는 지난 2011년 1월19일 대전지검 소속 검찰직원, 조직폭력배 후배, 살인 전과 고물수집업자 등과 함께 중국 대련으로 2박3일간 접대성 해외여행을 다녀온 것이 드러나 같은 해 10월31일 정직 1개월 징계처분을 받았다. 이후 김씨는 징계처분에 불복해 행정안전부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인터넷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www.kwangju.co.kr

'교사' 사칭 수천만원 뜯고 외상술

쌍나팔

○…미용실 여종업원과 주점 업주 등에게 자신을 교사, 어머니가 한의사라고 속여 수천만원을 뜯어내고 1000만원이 넘는 외상술까지 먹은 간 큰 30대에 법원이 징역 8월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

○…광주지법 형사9단독 신현범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최모(32)씨에 대해 "범죄 전력이 있는데다 이번 사건의 피해 정도와 회복 여부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

○…최씨는 지난 2011년 초 미용실에서 알게된 종업원과 사귀면서 자신이 초등 교사로 재직하고 있는 것처럼 속여 5810만원을 받아 챙겼는가하면, 단골 노래방과 유흥주점에서 18차례에 걸쳐 모두 1280여 만원 상당의 술을 먹고 결제를 안 한 혐의.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